

발가락이 닳았다

(흔외정사 5)

I. 산후 우울증

한 젊은 부인이 자신은 ‘산후 우울증’을 앓는 중이라며 찾아왔다. 자신은 결혼한 지 5년여가 지났으며 석 달 전에 첫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침울한 기분이나 의욕의 감퇴 등 전형적인 우울 증상보다는 불안하고 초조하며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에 더 시달림을 받고 있었다.

4, 5차례 이상 병원을 찾은 그녀는 “약을 계속 먹어도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더니 결국 마음속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녀는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인륜(人倫)과 도덕의 굴레 안에서 고뇌하는 중이었다. 그녀를 치료해 가면서 “인간의 방어 본능이란 외부의 위협적인 존재에 대항하는 가시적(可視的)인 노력일 뿐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눈에 뵈지 않는 것도 거침없이 외면해 버리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어떤 집안의 장남 며느리로 결혼을 한 그녀는 삼사 년이 되도록 태기(胎氣)가 없었다. 처음에는 그저 눈치만 보는 듯 하던 시부모가 언제인가 부터 노골적으로 “아이를 너무 늦게 갖는 것은 좋지 않다”든가 “젊을 때 임신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든가 하는 말을 서슴지 않게 되었다. 거기에다 시어머니가 지나가듯 하는 말투로 “요즘 젊은 아이들은 너무 이기적 이어서 자기들만 생각하느라고 아이를 일부러 늦게 낳는다더라”는 험박성 짙은 푸념을 늘어놓기까지 하였다. 가끔 아들집을 찾아오는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몹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자신의 임신 능력에 강한 불안감이 생긴 그녀는 몇 번을 망설이다가 산부인과를 찾았고 거기서 그녀는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 후로 그녀는 남편에게도 검사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게 되었다.

“알았어, 언제 한 번 시간을 내 보지.”

남편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 언제부터인가 남편은 점점 생기를 잃어 가는 듯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몹시 불안해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차츰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더니 급기야는 사소한 말 한 마디에도 툭하면 싸움을 걸어 대며 거칠게만 변해 갔다. 사흘이 멀다 하고 부부 싸움을 해대던 그들은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곧 이혼을 해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날도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아파트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와 기침 소리로 보아 술에 곤약이 된 남편이 분명했다. 당장 또 한 번의 대판 싸움이 벌어질 위기였다. 그러나 이번에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복도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같은 아파트의 다른 집 남자와 함께 남편이 들어온 것이었다.

“이봐, 인사하지. 저기 ○○○호에 사는 김 형이야. ○○회사 과장님이래. 김 형, 어서 들어가서 한 잔 더 합시다.”

남편은 이미 술이 떡이 되어 ‘김 형’의 어깨에 걸쳐 있다시피 하고 있었다.

난감해 하는 부인의 표정을 본 ‘김 형’은 들어가 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잔만 더 하자”는 남편의 청을 일방적으로 거절하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한 자세가 되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주저앉힌 것은 취중에 마구 내뱉는 남편의 독설(毒舌)이었다.

“야, 이 여편네야. 뭘 뻘뻘 쳐다보고 있어. 남편 말이 말 같잖아?”

그냥 두고 가면 큰 싸움이 나겠다 싶었던지 ‘김 형’이 남편을 부축하고 따라 올라왔다. 독한 양주를 몇 잔 더 들이킨 남편은 인사불성이 되어 아내의 태도며 행동거지를 꾸짖고 호통 치다가 소파에서 고개를 꼬꾸라뜨린 채 반 주검이 되어 쓰러졌다.

너무나 당황했던 부인은 수치심과 분노로 영영 울었다. 그리고는 왜 그리하는지 자신도 모르게 그 동안 겪었던 고부간의 갈등과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들었던 일들을 그 ‘김 형’에게 다 털어놓았다. 부인은 웬지 이 남자가 자신을 다 이해해 줄 것 같은 느낌에 빠졌다고 회상했다. 서러움이 복받쳐 영영 우는 그 부인의 등을 툭툭 두들겨 주던 그 ‘김 형’에게 그녀는 덤석 안겨 버렸다. 일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밤은 더욱 깊어만 가고 거실의 소파에서는 “나 아직 살아 있다”고 외치는 듯한 남편의 코고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렸다.

II. 씨도독은 못 해

그런 일이 있고 그 ‘이웃집 남자’는 몹시 멧 적어 하면서 집을 나갔다. 그러나 그 날 이후

그녀의 가슴에는 그의 체온이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남편은 아무 것도 모른 채 그 남자를 좋은 사람이라며 자주 집에 데리고 왔다. 때로는 부인과 두 아이가 있는 그 집을 오가며 저녁 식사를 하거나 맥주를 마시기도 하였다.

그녀는 그런 생활에서 오히려 생기를 얻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어두운 얼굴로 때때로 과음을 하고 그 '김 형'에게 부축을 받으며 집에 돌아오곤 했다.

남편은 '김 형'과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아내의 바가지가 덜 하기 때문에 그리 하였을 것이고, '김 형'은 어쨌거나 정신을 잃다시피 한 남편을 '술꾼의 의리' 운운하며 부축해 주어야 집안에 발을 들여놓을 명분이 섰기 때문이리라.

나중에는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아침 시간에 그 남자가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찾아오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을 '천벌 받을 년'이라 했다. 신음하듯 코를 고는 남편을 한 집안에 두고 외간 남자와 운우지정(雲雨之情)을 나눈 것 때문에 하늘이 지금 벌을 내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런 일이 시작된 지 두어 달 뒤 그녀는 구역질을 시작했다. 임신임을 직감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표정은 말하자면 너무 기쁜 나머지 무어라 말을 할 수 없는 표정이었거나, 졸지에 추돌(追突) 당한 차의 운전자가 중심을 잃고 허둥대는 모습이었거나 둘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날 밤 남편은 또다시 술이 떡이 되게 마시고 들어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밤새 끔끔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 하는 듯 하였지만 옛날처럼 횡설수설하지도 않았다.

며칠 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불안해진 그녀는 남편의 행적을 조심스레 탐문했다. 그리고 이미 일 년 전 남편이 불임 검사를 했으며 '임신 불능'의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사실은 '김 형'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남편이 취중에 "나는 씨 없는 수박이야. 우장춘 박사의 걸작이지"라는 농담을 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문제의 '김 형'은 "그 아이는 내 아이가 틀림없으니 떼어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편의 아이일 수도 있다..."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악아, 너 임신했다며. 몸조심해야 한다. 그놈은 우리 집안 장손이다."

웬일인지 집에 돌아온 남편은 몰라볼 정도로 얼굴이 밝아져 있었다. 그녀는 막연히 "남편이 불임 검사를 다시 하고 임신 가능이라고 판정 받았을지도 모른다"라고 믿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술도 안마시고 착실한 인간이 되어 갔다.

분만실에서 딱 하루 동안 산고를 치르고 “수고했다”며 싱글벙글하는 남편이 건네 준 아이를 하마터면 집어 던져 버릴 뻔했다. 아이는 놀랍게도 생긴 것하며 쟁그리는 것하며 하는 것 모두가 ‘김 형’의 그것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우리 할아버지하고 이마가 똑같이 생겼대”라고 했다. 두어 달 후 아이를 유모차에 싣고 아파트 상가에 나간 그녀는 슈퍼 아줌마의 말을 듣고는 기절할 뻔했다.

“아, 누구 네가 아이 낳았다고 하더니 김 과장님네 아이구만. 어쩌면 이렇게도 똑같이 생겼나? 그래서 씨도독은 못 한다니까...”

어느 날은 아이를 목욕시키던 남편이 한마디 했다. “어, 그놈 자식 어쩌면 발가락도 나하고 똑같이 생겼나?”

부인은 김동인(金東仁)의 단편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를 떠올렸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남편이 자기 자식과 똑같이 생긴 ‘김 형’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해진 것이 이상하다고 했다. 남편의 눈에 띄어진 콩깍지가 걸히는 날 자기는 죽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아이를 떼어버리라던 ‘김 형’은 아이를 본 후 “몹시 괴롭다”고 하더니 자신과 들어서 아이를 안고 도망치자고 제의해 왔다.

여기까지가 부인이 병원을 찾게 된 사연이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얼마 안 있어 “직장도 바꾸고 이사도 하고 새롭게 잘 살아보자”고 남편에게 제안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 말에 따라 정말 딴 곳으로 이사해 버렸다.

아주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이지는 했지만 남편의 안전장치(방어 기제)는 완벽할 정도로 잘 작동하였다. 그들에게는 간통 사건으로 감옥 갈 일도, 서로 원수가 되어 칼질을 할 일도, 태어난 아이를 사생아(私生兒)라고 낙인찍어 고아원에 보낼 일도 생기지 않았다.

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일도 많다.